민족화해협력추진본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발족식

민족화해협력추진본부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7대 종교와 함께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남북화해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선다. 이에 민화협은 9월 5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민족 화합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현재 종교계와 함께 구체적 사업 내용을 협의중이며 이 모든 사업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 금강산 국제평화문화제를 계획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상임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불교계 탈핵운동 하반기에도 뜨겁다

불교생명윤리協, 탈핵행사 잇달아

불교 안의 생명윤리 사상을 세상에 펼치고 탈핵, 탈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불러 모으기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생명윤리협회는 9월 5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탈 원전 인사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 인사로는 탈핵국회의원모임 간사인 우원식 국회의원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 김익중동국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9일에는 서울 열린선원에서 탈핵을 주제로 김익중 교수 초청 특강이 진행되며 불교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또 불교생명윤리협회는 10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생명학과 생명윤리', '탈핵 · 탈원전의 당위성'의 두가지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부 주제로는 △불교 생명학의 원리와 지향점 △21세기 현실에서 불교생명윤리의 과제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본 탈핵 · 탈원전 △불교의 관점에서 본 탈핵 · 탈원전 등이 진행된다. 발표자 및 세부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법응 스님은 "후쿠시마 핵재항은 생명과 문명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탈핵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현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노동자가 곧 부처님" 불교계 인식변화 계기

조계종 노동위 의미와 과제

8월 28일 위촉된 조계종 노동위원들이 첫 행보로 대한문앞 쌍용차 분향소를 찾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노동문제에 대해 불교계가 본격적인 해답 찾기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노동위원 위촉식을 열고 노동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위촉된 노동위원으로는 법광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종호 스님(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원명 스님(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도철 스님(법주사 수좌), 혜조 스님(지산사 주지), 동환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등 출가위원 6명과 유덕상(한국통신 춘천지사), 권승복(공무원노동조합 지도위원), 임두혁(미디어 충정 대표),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백신옥(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 재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후 1차 회의를 가진 노동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수석부위원장에는 혜조 스님이, 차석부위원장에는 유덕상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 호선됐다.

노동문제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종단 차원의 위원회가 생긴 것은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8월 29일에는 노동자와 시민을 초청해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불교계가 나서서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초대 위원장에 선출된 종호 스님은 "노동위원회 발족은 '노동자를 곧 부처님'으로 보겠다는 인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가 노동자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노사분규 현안 대응을 비롯해 △노동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노사문제 연구 등 본격 활동

쌍용차 해결, 첫 사업될 듯

노동자 템플스테이로 차별화

창출 △노동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장기 해고로 22명이 자살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9월 7일 열리는 노동위원회 1차 워크숍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주제로 이뤄진다.

양한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통합사업팀장은 "쌍용차 문제는 시대의 아픔이다. 이들이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를 해야 봐야 하겠지만,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에서 매일 1000배 100일 정진과 법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계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적다. 이에 대한 환기도 필요하다"며 "교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만큼 노동 단체와의 연대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개신교 · 천주교 등보다 후발 주자인 탓에 차별화된 사업도 필요하다.

종호 스님은 "민주노총과 한노총 등을 방문해 노동 단체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한다"며 "분명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노동자와 불교만 보고 가겠다. 현장을 직접 다니며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 역시 "장기 해고노동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단순한 지원만으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치유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템플스테이 등을 열어 노동자들이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2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된 대행 선사 100재에 앞서 150여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고있다.

대행 선사 100재 본원서 봉행

사부대중 3000여 명 동참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 열반 100일째인 8월 29일 오전 11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100재가 열렸다.

이날 100재에는 주지 혜원 스님과 한마음선원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과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등 150여 스님이 참석했다. 또한 3000여 사부대중이 5층 대법당부터 3 · 4층 법당에 이르기까지 스님을 추모하는 발길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청정 계행 실천 모범 돼야"

연대회의, 승단 범계 원인과 근절방안 대화마당

승단의 범계 원인과 근절방안에 대한 대화마당이 8월 28일 장충동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체하는 '청정성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 두 번째 공청회로 이 자리에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가 발제로 나섰다.

김 교수는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범계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정화 방법과 승가의 근절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범계 발생의 원인을 ▷세속화 ▷출가 동기와 수행과정의 문제 ▷출가 이후 수행자 정신의 해이 ▷문중주의와 연고주의 ▷현전승가의 부조화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김 교수는 소임이나 생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멱조출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출가 희망자가 감소하면서 출가 전의 삶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구족계를 수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멱조출가가 많아질수록 범계의 형태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자 종단인 조계종이 독자적으로 청정한 계행 실천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구 중심의 승려노후복지 방법 제시 ▷교구 공찰 중심의 대중공의 ▷범계 행위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제기했다. 정혜숙 기자

축구를 통한 불자 화합의 장을 열다

15일 총지종 주최 '제1회 만다라배 불교 축구대회'

축구로 불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정사)이 주최하고 불자축구팀 FC붓다가 주관하는 제1회 만다라배 불자축구대회가 9월 15일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FC붓다, 총지드래곤즈(불교총지종 축구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광사, 봉은사, 사자후(조계종 총무원 축구동호회), 전국사설사암단체연합회 등 8개 팀이 출전한다.

대회장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는 "불교총지종이 구현해 온 생활불교의 실천방안으로, 불자들을 위한 축구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자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포교의 방편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기원했다.

대회에 앞서 이동격 FC붓다 회장(현대불교신문사 부장)은 "불자축구대회는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불자가 참여하는 큰 대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결국 법정으로

감사준비위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소송 청구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특혜와 관련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지하 1000여 ㎡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자리에는 황일근 서초구 의회 의원(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 청구인 대표), 엄윤상 변호사,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초구민 조성두 김진옥 씨 등이 참석했다.

대표 황일근 의원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지하 건물 공정률 80%, 전체 공사는 20%가 진행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된 사랑의교회 측과 서초구청 사이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원상회복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한 신축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랑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주민과 법을 우롱하는 서초구청의 각성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처분 즉각 철회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공간 원상회복하고, 적법한 공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혜숙 기자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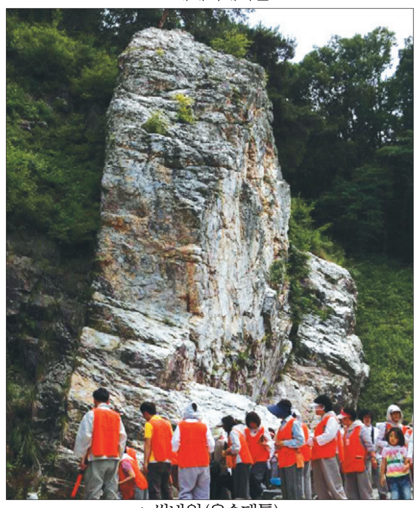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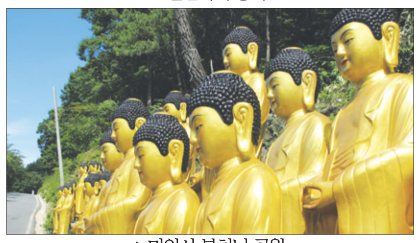
▷세계최대와불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미암사 부처님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